



## 일본 후생성,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 계획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10월 31일 고소득 직장인의 연금보험료 상향 조정을 위해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(소득비례연금)의 보험료 산출 기준인 표준보수 상한 개정을 발표함.
  - 표준보수월액은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 등의 사회보험 보험료와 연금급부액 등을 산출하는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은 5만 8,000엔~121만 엔의 47등급, 후생연금은 9만 8,000엔~62만 엔의 3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, 표준소득 상한과 하한이 각각 설정되어 있음.
  - 이는 일본이 운용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표준보수 하한보다 낮은 저소득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급부를 보장하고, 고소득자에게는 일정액 이상의 급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기 때문임.
- 그러나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표준보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, 후생연금이 건강보험(121만 엔)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.
  - 현재 표준보수월액별 피보험자수 분포를 보면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약 3,400만 명 중 약 210만 명(약 6.2%)이 상한인 62만 엔에 해당하여 바로 아래 등급과 비교해 더 높은 피보험자 비중을 차지함.
- 이에 후생성은 후생연금의 표준보수월액 상한을 건강보험 수준인 121만 엔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국회에 제출하여 연금보험료 수입 확대를 통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확보할 계획임.
  - 표준소득 상한이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는 2012년에는 월 121만 엔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현재 월 10만 2천 엔에서 월 19만 9천 엔으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.
  - 아울러, 후생성은 파트타임 종사자 등의 임시직 근로자에게 후생연금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표준소득월액 하한의 하향 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.

(산케이신문 10/23, 11/1, 마이니치신문 11/1 뉴스 종합)